

2023년 3-1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3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리스크 점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2023년 2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美 SVB 파산 영향 관심, 日·유로존 2022년 4분기 0% 성장

- 미국은 1월중 실물지표들의 혼조세와 체감·선행지표들의 하락이 나타난 가운데 SVB 은행 파산(3.10일) 영향으로 美 정부와 연준의 대응책에 관심이 고조
- 일본은 지난 12월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4분기중 전기비 0.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간 전체 1.0% 성장하고, 유로존은 역대 실물 지표들이 감소하면서 4분기 0.0% 성장에 그친 가운데 연간 전체 3.5% 성장
- 중국은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 조치의 완화와 산업활동 회복 등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 달러화는 2월중 미국의 인플레이 확대 우려감으로 상승하고, 3월 초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 발언으로 강세를 보인 이후 美 SVB 은행 파산 여파로 하락
- 유가는 2월 중순 이후 미국 원유재고 증가세로 하락세를 보이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시행을 앞두고 지속 상승한 이후에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로 하락

□ 국내경기 : 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투자 동반 감소세

-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7개월 만에 증가(전월비 2.9%)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이나마 증가(0.1%)한 데 힘입어 전월비 0.5% 증가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등 모든 품목에서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2.1%)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기계류 감소 여파로 감소세(-1.4%)가 지속

□ 금 융 : 2월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가계대출 감소세 둔화, 3월 초(3월 2일 ~ 10일) 금리 강보합 및 원/달러 상승세

- 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에도 대기업 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시)도 특히 기타대출의 전월비 감소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월비 감소세가 둔화

- 국고채(3년) 금리는 2월 미 국채금리 상승세와 함께 큰 폭 상승하고, 3월 들어서는 전월의 급등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하락하는 등 강보합
- 원/달러 환율은 2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로 1,3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파월 의장의 빅스텝 인상 가능성 발언 등으로 추가 상승

□ 산업별 동향 : 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3.2%, 서비스업생산 +5.9%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제외하고 반도체, 전자부품, 화학제품, 1차금속,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13.2% 감소
 - 제조업ICT는 감소폭이 확대, 중공업과 경공업 역시 감소폭이 동반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도소매,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5.9% 증가

□ 고용 : 1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올 1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에 농림·어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제조업의 취업자 수도 감소 전환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인 1.5%를 기록

□ 수출입 : 2월 수출 -7.5%, 수입 +3.6%, 무역적자 약 53억 달러

- 지난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 수입은 3.6% 증가한 554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53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석유제품, 가전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CT 품목들과 석유화학, 철강, 섬유, 선박류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지역별로는 對 중국과 아세안, 일본, 중남미, CIS 등 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가 지속

1. 해외경제

□ 미국 : 1월 생산 보합·소비 증가, SVB 파산 여파로 금융위기 우려 고조

○ 올 1월 생산 보합과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하락세 등으로 경기 향방의 불확실성은 여전. SVB 은행 파산 영향으로 금융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美 정부와 연준의 대응책에 관심 고조

- 산업생산이 유틸리티 부문의 대폭 감소(전월비 -9.9%) 영향에도 제조업(1.0%)과 광업(2.0%)의 동반 증가로 보합세를 보이고, 소매판매는 백화점(17.2%) 등의 판매가 큰 폭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신규수주와 생산 등이 동반 하락하면서 기준치(50)를 여전히 하회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50.9)의 상승에도 미래 기대지수(77.8)가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보다 하락
-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가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전월비 51.7만 명)를 기록하고,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기준 10개월 연속 하락세
- 美 SVB 은행의 파산(3.10일) 영향으로 은행 시스템 리스크 충격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美 정부와 연준의 대응책에 관심이 고조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9	2.1	-0.6 (1.8)	3.2 (1.9)	2.7 (0.9)				
산업생산 (IT생산)	4.9 (12.1)	3.8 (4.2)	1.2 (0.2)	0.3 (1.4)	-0.6 (-2.8)	0.0 (-1.3)	-0.6 (-1.1)	-1.0 (-1.6)	0.0 (-0.1)
내구재수주	15.6	10.4	1.9	1.9	1.4	0.7	-1.8	5.1	-4.5
소매판매	19.8	9.2	2.4	0.8	0.1	1.1	-1.1	-1.1	3.0
소비자물가	4.7	8.0	2.3	1.4	1.0	0.5	0.2	0.1	0.5
실업률(%)	5.4	3.6	3.6	3.6	3.6	3.7	3.6	3.5	3.4
무역수지(10억U\$)	-845.0	-945.3	-252.2	-207.0	-205.0	-77.2	-60.6	-67.2	-68.3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54.8	52.2	49.2	50.2	49.0	48.4	47.4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3.4	102.2	104.2	102.2	101.4	109.0	107.1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7	116.0	114.0	111.5	112.5	111.5	110.6	110.3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2월 생산·소비 동반 증가, 2022년 4분기 전기비 0.0% 성장

- 지난해 12월 생산과 수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경기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 2022년 4분기중 투자 감소(-0.5%)에도 소비 증가(0.3%) 등으로 전기비 0.0%의 성장률(전년동기비 0.4%)을 기록, 2022년 전체 성장률은 전년보다 하락한 1.0%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1	1.0	1.2	-0.3	0.0				
광공업생산	5.6	0.1	-2.7	5.9	-3.0	-1.7	-3.2	0.2	0.3
민간기계수주	6.1	5.5	8.1	-1.6	-5.0	-4.6	5.4	-8.3	1.6
소매판매	2.1	2.6	1.8	1.4	1.2	1.5	0.3	-1.3	1.1
소비자물가	-0.2	2.5	1.0	0.9	1.1	0.4	0.4	0.4	0.3
실업률(%)	2.8	2.6	2.6	2.6	2.5	2.6	2.6	2.5	2.5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78	-4,649	-6,370	-5,659	-2,100	-2,175	-2,033	-1,452
경기선행지수 ¹⁾	101.6	100.0	101.2	99.9	97.9	98.6	98.8	97.7	97.2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월 소비자물가 2.1% 상승, 올해 中 성장률 전망치 상향 추세

- 연초 中 경제지표 실적이 3월에 처음 발표되는 가운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식품(6.2%)과 비식품(1.2%), 특히 여행 관련 부문(11.2%)의 물가가 큰 폭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와 산업활동 회복 기대감으로 주요 금융기관들이 올해 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0.4	3.9	2.9				
산업생산	9.3	3.4	0.6	4.8	2.8	5.0	2.2	1.3	-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6.1	5.9	5.1	5.8	5.3	5.1	-
소매판매	12.4	-0.8	-4.9	3.5	-2.7	-0.5	-5.9	-1.8	-
소비자물가	0.9	2.0	2.2	2.7	1.8	2.1	1.6	1.8	2.1
수 출(달러화기준)	29.6	7.0	28.1	20.1	2.3	-0.3	-9.0	-9.9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2월 생산·소비 감소, 2022년 4분기 역내 성장률 0.0%

- 지난해 12월 역내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한 반면에, 경제체감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 유로존의 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0%(전년동기비 1.8%), 연간 전체 성장률은 전년보다 낮은 3.5%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3	3.5	0.9	0.4	0.0				
산업생산	8.0	0.7	0.3	0.2	-0.2	0.8	-2.0	1.4	-1.1
소매판매	5.1	0.9	-0.5	-0.6	-1.1	0.8	-1.5	1.2	-2.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8.0	9.3	10.0	9.9	10.6	10.1	9.2
무역수지(10억유로)	111.6	-321.4	-94.7	-122.4	-60.4	-36.7	-28.0	-14.4	-18.1
경제체감지수 ¹⁾	110.8	101.5	104.0	96.7	94.3	93.9	93.0	94.0	95.8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미 달러화 & 유가 상승 이후 약세 전환

- 달러화는 2월중 미국의 인플레이 확대 우려감과 연준 이사들의 금리 인상 지속 시사 발언 등으로 상승하고, 3월 들어서도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 발언으로 강세가 이어지다 美 SVB 은행 파산 충격에 따른 금리 급락으로 동반 하락
- 유가는 지난 2월에 미국 원유재고 증가세와 달러화 강세 등의 지속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러시아의 원유 감산 시행(3월)을 앞두고 상승 전환한 모습이 나, 중국의 연초 원유 수입액 감소와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감 등으로 하락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10일
엔/달러	135.72	133.27	138.96	144.74	148.71	138.07	131.12	130.09	136.17	135.03
달러/유로	1.0484	1.0220	1.0054	0.9802	0.9882	1.0406	1.0705	1.0863	1.0576	1.0643
미 국채 (10년만기)	3.01	2.65	3.19	3.83	4.05	3.61	3.87	3.51	3.92	3.70
WTI유	105.8	98.6	89.6	79.5	86.5	80.6	80.3	78.9	77.1	76.7
두바이유	115.0	105.8	95.6	90.1	90.0	80.2	78.7	79.3	81.3	79.6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투자 동반 감소세

○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7개월 만에 증가(전월비 2.9%)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이나마 증가(0.1%)한 데 힘입어 전월비 0.5% 증가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5.7%)와 기계장비(-6.1%)의 감소 영향에도 자동차(9.6%), 기타운송장비(12.8%), 1차금속(6.7%) 등을 중심으로 전월비 2.9%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5.4%)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0.1%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GDP성장률	4.1*	2.6*	2.9* (0.7*)	3.1* (0.3*)	1.3* (-0.4*)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7*	4.3*	3.9* (2.9*)	5.7* (1.7*)	3.4* (-0.6*)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0*	-0.5*	-6.6* (0.5*)	4.1* (7.9*)	7.0* (2.7*)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3.5*	-3.7* (0.2*)	-2.1* (-0.2*)	-3.1* (0.8*)	-	-	-	-
전산업생산지수	5.5	4.5*	5.8 (0.9)	5.6 (0.3)	1.9* (-1.5*)	3.9 (-1.2)	1.4 (-0.4)	0.7* (0.0*)	-0.8* (0.5*)
광공업생산지수	8.2	1.4*	5.6 (-2.3)	1.4 (-2.4)	-6.4* (-6.4*)	-2.7 (-3.7)	-5.5 (-0.4)	-10.5* (-3.1*)	-12.7* (2.9*)
제조업생산지수	8.4	1.4*	5.6 (-2.2)	1.4 (-2.6)	-6.7* (-6.7*)	-2.8 (-3.8)	-5.7 (-0.4)	-11.1* (-3.6*)	-13.2* (3.2*)
서비스업생산지수	5.2	6.8*	6.9 (3.0)	8.6 (1.6)	6.0* (0.2*)	7.1 (-0.3)	4.1 (-0.7)	6.7* (1.5*)	5.9* (0.1*)
소매판매액지수	8.3	-0.4*	-0.2 (-0.9)	-1.0 (-0.1)	-2.3* (-0.9*)	-1.5 (0.8)	-2.2 (-2.1)	-3.1* (-0.2*)	0.7* (-2.1*)
설비투자지수	9.6	3.3*	-2.4 (-0.4)	7.5 (8.6)	9.6* (-0.2*)	16.7 (0.1)	10.7 (0.3)	3.2* (-6.1*)	-3.9* (-1.4*)
건설기성액	-6.7	2.7*	2.0 (-0.1)	3.5 (0.8)	6.5* (4.6*)	9.4 (4.7)	11.8 (-0.7)	0.5* (-0.7*)	0.9* (1.8*)
동행종합지수(2020=100)	104.1	108.6*	108.2	109.3	109.2*	109.6	109.2*	108.7*	108.5*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6	101.0*	101.0	101.2	100.5*	101.1	100.5*	99.8*	99.4*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3	108.7*	108.5	109.2	109.6*	109.6	109.6*	109.5*	109.5*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2	99.8*	100.1	99.7	99.2*	99.5	99.3*	98.8*	98.5*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전월비 -1.9%)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의복 등 준내구재(-5.0%)도 감소 전환한 데다, 승용차 등 내구재(-0.1%) 역시 전월에 이어 감소한 영향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2.1%)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전월비 15.9%)에서 증가한 영향에도 기계류(-6.9%)에서 감소하면서 전월에 이어 감소세(-1.4%)가 이어지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10.3%) 공사 감소에도 건축(5.9%) 공사 증가에 힘입어 1.8%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한 반면에,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전월비 -0.2%)가 이어지고, 선행종합지수는 장단기금리차와 재고순환지표 등이 하락한 반면에, 건설수주액과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 수준에서 보합(0.0%)

□ 물가 : 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4.8% 상승

- 2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0.7%) 부문을 제외하고 음식·숙박(0.6%)과 주택·수도·전기·연료(0.5%), 식료품·비주류음료(0.4%), 교육(0.2%) 등 나머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월비 0.3% 상승(전년동월비 4.8%)
- 1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전월비 4.9% → 0.6%)되고, 공산품 가격의 낙폭이 축소(-1.3% → -0.1%)된 반면에,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0.2% → 0.5%)되면서 전월비 0.4% 상승(전년동월비 5.1%)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소비자물가	2.5	5.1	5.4 (2.1)	5.9 (1.1)	5.3 (0.4)	5.6 (0.3)	5.7 (0.3)	5.0 (-0.1)	5.0 (0.2)	5.2 (0.8)	4.8 (0.3)
근원물가	1.8	4.1	4.0 (1.4)	4.5 (0.9)	4.8 (1.2)	4.5 (0.3)	4.8 (0.6)	4.8 (0.3)	4.8 (0.4)	5.0 (0.7)	4.8 (0.3)
생산자물가	6.4	8.4	9.9 (3.5)	8.4 (0.7)	6.5 (0.1)	7.9 (0.1)	7.3 (0.5)	6.2 (-0.3)	5.8 (-0.4)	5.1* (0.4*)	-
근원물가	6.0	6.4	7.7 (2.4)	5.8 (0.1)	4.0 (-0.1)	5.2 (0.0)	4.5 (0.2)	3.9 (-0.2)	3.8 (-0.2)	3.1* (0.1*)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2월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가계대출 감소세 둔화

- 지난 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 영향에도 대기업 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
(23년 1월 +7.9조원 → 2월 +5.2조원, 대기업 +0.9조원, 중소기업 +4.3조원)
 - 대기업 대출이 전월의 계절요인(연말 일시 상환분의 재취급) 소멸과 회사채 발행 확대에 의한 대출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
 -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일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 회사채는 회사채 투자수요 호조에 따른 발행 여건의 선으로 순발행이 확대
(2023년 1월 +3.2조원 → 2월 +4.3조원)
- CP·단기사채는 전월 선차환 발행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 기조로 전환
(2023년 1월 +6.9조원 → 2월 -1.7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소폭 증가
(2023년 1월 +1.5조원 → 2월 +0.2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2월말 잔액
	1~2월	2월	1~2월	2월	12월	1~2월	1월	2월	
■은행 원화대출	19.0	8.9	19.6	6.3	-9.4	13.1	7.9	5.2	1,183.4
(대 기 업)	4.0	0.6	4.8	0.7	-6.1	7.5	6.6	0.9	224.4
(중소기업)	15.0	8.4	14.8	5.6	-3.3	5.6	1.3	4.3	959.0
〈개인사업자〉	6.6	4.1	4.9	2.7	-0.8	0.5	-0.9	1.4	443.2
■회사채 순발행	5.9	3.7	3.1	0.7	0.6	7.5	3.2	4.3	..
■CP 순발행	5.6	2.3	10.2	4.4	1.5	5.2	6.9	-1.7	61.7
■주식발행	2.4	0.7	13.0	0.0	0.6	1.8	1.5	0.2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 2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소폭 감소한 반면에,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전월비 감소세가 둔화
(2023년 1월 -4.7조원 → 2월 -2.7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및 집단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전세자금대출 감소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폭 감소 전환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1월 0.0조원 → 2월 -0.3조원)
- 기타대출은 고금리, 대출규제 등에도 전월의 계절요인 소멸로 감소폭 축소
(2023년 1월 -4.6조원 → 2월 -2.4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2월말잔액
	1~2월	2월	1~2월	2월	12월	1~2월	1월	2월	
은행 가계대출	14.3	6.7	-0.6	-0.2	0.3	-7.4	-4.7	-2.7	1,050.7
■주택담보대출	11.4	6.5	3.9	1.7	3.1	-0.3	0.0	-0.3	798.6
■기타대출	2.8	0.3	-4.6	-2.0	-2.9	-7.0	-4.6	-2.4	250.8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3월 초(3월 2일 ~ 10일) 금리 강보합 & 원/달러 상승세

- 국고채(3년) 금리는 지난 2월 연준의 통화긴축 우려에 따른 美 국채금리 상승세와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한 이후, 3월 들어서는 전월의 급등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하락하는 등 강보합
(3월 2일 3.878% → 3월 10일 3.703%, -0.18%p)
- 원/달러 환율은 2월에 미국의 인플레이 압력 강화와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지속 시사 등으로 2개월 만에 1,300원대로 상승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파월 의장의 빅스텝 인상 가능성 발언과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상승세
(3월 2일 1,315.3원 → 3월 10일 1,324.2원, +8.9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3/4	4/4	1/4	2/4	9월	12월	1월	2월	3.10일
국고채(3년)	1.59	1.80	2.66	3.55	4.19	3.72	3.33	3.80	3.70
회사채(3년, AA-)	2.05	2.42	3.34	4.36	5.28	5.23	4.34	4.48	4.40
CD(91일)	1.04	1.29	1.51	2.04	3.24	3.98	3.63	3.59	3.61
CP(91일)	1.18	1.56	1.66	2.34	3.30	5.28	4.57	4.06	4.06
원/달러	1,184.0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231.9	1,322.6	1,324.2
원/100엔	1,058.2	1,030.2	992.7	946.5	993.3	953.2	942.2	967.4	969.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월중 전년동월비 - 13.2%, 전월비 +3.2%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10.9%), 기타운송장비(21.1%), 통신·방송장비(35.4%) 등을 제외하고, 반도체(-33.9%), 전자부품(-32.6%), 화학제품(-23.6%), 1차금속(-15.6%), 기계장비(-7.4%)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전년동월비 13.2%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에서 감소폭(-29.8%)이 더욱 크게 확대되고, 중공업(-14.1%)과 경공업(-8.4%) 역시 전월에 이어 감소폭이 동반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5.7%), 전자부품(-2.8%), 기계장비(-6.1%) 등에서 감소한 반면, 자동차(9.6%), 기타운송장비(12.8%), 1차금속(6.7%), 섬유제품(6.8%), 화학제품(3.9%)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증가 전환(3.2%)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0.4)는 반도체와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 기계장비,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1.2%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도 0.5% 하락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0.0%로 전월에 이어 2.2%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재고 증가폭이 전월과 달리 확대(4.5% → 9.7%,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된 반면, 출하는 감소폭이 축소(-9.4% → -8.4%)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9%로 전월보다 2.6%p 상승

□ 서비스업생산 : 1월중 전년동월비 +5.9%, 전월비 +0.1%

○ 서비스업생산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1.3%), 정보통신(-0.5%)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11.2%)와 숙박·음식점(9.0%)을 비롯해 도소매(5.4%),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서비스(5.6%) 등에서 동반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5.9% 증가

- 전월비로는 운수·창고(-2.0%), 숙박·음식점(-0.3%) 등에서 감소한 반면, 도소매(3.7%), 정보통신(3.1%), 전문·과학·기술서비스(0.9%),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서비스(0.5%) 등에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월비 0.1%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113.2	108.4	107.1	106.8	108.7	96.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5.6	1.4	-6.4	-5.5	-10.5	-12.7	2.9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114.1	108.8	107.1	107.1	107.8	95.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5.6	1.4	-6.7	-5.7	-11.1	-13.2	3.2
섬 유	113.4	2.0	-3.5	-1.3	-3.9	-10.3	-9.4	-15.3	-15.7	6.8
화 학	854.2	8.6	-9.9	-4.8	-16.9	-20.1	-17.8	-25.2	-23.6	3.9
철 강	496.6	5.2	-8.4	-0.6	-11.9	-23.2	-25.9	-18.4	-18.1	8.3
반도체	2,023.8	26.8	7.6	27.4	1.3	-19.8	-22.6	-25.1	-33.9	-5.7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13.2	14.2	10.7	4.7	17.4	-22.0	-28.7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1.0	4.3	-1.1	7.1	-35.9	35.4	111.0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5	5.0	7.8	5.8	2.0	7.0	-4.2	-2.1
기계, 장비	737.3	12.1	1.1	-4.8	7.2	5.5	12.3	-0.4	-7.4	-6.1
자동차	987.5	6.3	9.1	5.0	18.8	17.5	21.4	11.4	10.9	9.6
조 선	66.0	-7.2	20.9	26.7	21.2	24.2	26.7	26.6	18.3	2.1
- 중 공 업	-	9.9	1.5	6.0	1.2	-7.2	-6.2	-11.8	-14.1	3.0
- 경 공 업	-	1.3	0.4	2.8	2.5	-4.2	-3.3	-7.8	-8.4	4.5
- 제조업ICT	-	19.3	2.2	16.9	-2.1	-19.7	-20.4	-27.2	-29.8	0.6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2	112.4	112.9	112.9	118.3	113.8	127.2	111.3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2	6.8	6.9	8.6	6.0	4.1	6.7	5.9	0.1
도소매	193.7	5.3	2.6	3.1	3.4	1.0	0.1	1.1	5.4	3.7
운수및창고	78.2	4.2	17.7	18.0	23.9	17.7	16.2	15.2	11.2	-2.0
숙박및음식점	44.3	1.9	16.9	19.4	23.0	9.8	3.9	12.8	9.0	-0.3
정보통신	88.7	12.2	1.8	0.1	3.7	-0.8	-2.7	-0.3	-0.5	3.1
금융및보험	166.9	8.0	8.4	7.9	8.8	12.6	6.6	19.5	10.0	-5.0
부동산	38.7	2.3	7.9	7.5	9.5	5.9	6.8	2.0	6.0	5.4
전문·과학및기술	95.5	2.7	2.8	1.8	5.0	-0.3	0.9	-2.8	-1.3	0.9
사업시설관리 등	53.5	2.3	2.3	5.2	6.9	4.2	2.8	4.1	5.6	0.5
교 육	73.4	1.7	1.5	1.3	0.7	0.3	-0.3	0.0	0.3	-0.8
보건및사회복지	110.8	3.3	5.1	8.3	5.3	6.3	6.7	7.3	7.5	0.9
예술·스포츠및여가	19.8	6.9	15.4	42.9	63.5	27.1	20.8	20.0	12.5	-6.4
협회수리및개인	24.0	1.1	1.9	4.3	6.9	5.9	3.0	9.8	4.8	-2.5
수도·하수및폐기물	12.5	2.4	2.3	-6.3	-4.7	-4.9	-4.4	-7.3	4.4	14.8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 용

□ 취업자 수 : 1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올 1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에 농림·어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제조업의 취업자 수도 감소 전환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인 1.5%를 기록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02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0.8%)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2017년 3월 이후 최대폭 감소(-1.1% → -3.8%)한 반면에,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2.1% → 2.3%)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0.6% → -1.9%)되고, 도 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폭은 역시 확대(2.6% → 2.8%)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2.2% → -1.5%)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3.5% → 2.3%)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에도,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7.5% → 9.3%)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8% → 6.9%) 등에서 비교적 견고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증가율이 상승(2.7% → 3.3%)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전월과 달리 하락 전환하면서 2.9%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 산 업	27,273	28,089	28,347	28,425	28,216	28,389	28,418	28,421	27,808	27,363
전년동기비	1.4	3.0	3.2	2.8	2.2	2.6	2.4	2.3	1.9	1.5
농림·어업	0.9	4.6	6.0	5.7	2.1	5.3	2.9	3.9	-1.1	-3.8
제 조 업	-0.2	3.1	3.0	5.0	3.0	5.3	4.7	2.3	1.9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3.0	2.2	2.1	1.8	2.0	2.2	2.1	2.3
건 설 업	3.7	1.6	2.7	-0.3	0.2	-0.6	0.6	0.5	-0.6	-1.9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0.4	1.0	2.4	1.3	1.7	2.8	2.6	2.8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4.7	3.9	1.0	2.2	1.7	0.5	0.7	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4.4	2.8	2.6	2.5	2.5	2.6	2.7	3.3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9	2.8	2.9	2.8	2.8	2.8	3.1	2.9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2월 수출 7.5% 감소, 수입 3.6% 증가, 무역적자 53억 달러

○ 지난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 수입은 3.6% 증가한 554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53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석유제품, 가전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CT 품목들과 석유화학, 철강, 섬유, 선박류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가 나타남에 따라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7.5% 감소(5개월 연속 감소세)하고, 지역별로는 對중국과 아세안, 일본, 중남미, CIS 등 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동반 감소

- 수입은 유가 하락 등으로 원유 수입이 소폭 감소한 영향에도, 가스 수입이 큰 폭(전년동월비 73.2%)으로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6.4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5.7% 하락한 반면에, 도입물량이 5.9%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0.1% 감소한 약 73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수출	6,444 (25.7)	6,836 (6.1)	1,771 (13.0)	1,740 (5.8)	1,590 (-10.0)	524 (-5.8)	518 (-14.2)	548 (-9.7)	463 (-16.6)	501 (-7.5)
수입	6,151 (31.5)	7,314 (18.9)	1,835 (23.0)	1,923 (22.6)	1,776 (3.1)	592 (9.9)	589 (2.6)	596 (-2.5)	589 (-2.8)	554 (3.6)
무역수지	293	-478	-64	-183	-186	-67	-71	-48	-127	-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2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자동차·일반기계·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 13대 품목중 8개 품목 감소

○ 반도체 :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IT시장 둔화 등에 따른 주요 생산업체의 재고 조정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 하방산업 부진(비대면 수요, 빅테크 투자 지연

등)에 따른 주요 제품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 **자동차** : SUV·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비중 확대와 신차 물량의 수출 본격화, 반도체 공급 차질의 완화로 인한 선진시장 내 누적 대기수요의 실현 등에 힘입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 **자동차부품** : 북미지역에서의 자동차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도·아세안 등 신흥시장에서의 국산 브랜드 판매 호조, 조업일수 증가 영향 등에 힘입어 2022년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선박류** : 2023년 수출 선박은 선가 상승이 시작된 2021년도 수주 계약분에 해당되며, 컨테이너선(전년동월비 +2척)과 탱커(+2척) 등의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에도 중소형 선박 위주의 수출물량 증가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디스플레이** : 공급과잉에 따른 LCD 단가 하락과 국내생산 축소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세트업체들의 OLED패널 재고소진 계획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OLED 단가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
- **무선통신기기** : 아이폰14 생산 차질로 인한 이연수요 지속과 국산 플래그십 제품수요 지속 등의 영향에도 고물가로 인한 역대 최장 교체주기(43개월)에 따른 스마트폰 세계수요 감소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 전환
- **철강** : 겨울철 비수기 영향에 따른 주요 업체들의 내수공급 주력과 전년동월의 철강 가격 강세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
- **섬유** : 주요 소싱국(중국·베트남 등)들의 조업일수 증가에도 글로벌 소비재 업황 부진에 따른 수요 약세로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유가 약세로 인한 제품 수출단가 하락에도, 주요 수출품인 경유가 동절기 수요 등으로 높은 가격(105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엔데믹 이후 세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항공유 수출물량 증가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 **석유화학** : 중국의 자급률 상승(PX·PTA 등) 등으로 對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공급과잉에 따른 주요 품목들의 단가 하락세와 정기 보수로 인한 국

내 설비가동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 **일반기계** : 굴착기 등 건설기계 수요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요 증대(히트펌프 등)와 헝가리 배터리 공장 증설, 중동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수출이 6개월 만에 증가
- **가전** :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기조 여파에도 중견·중소 업체들의 해외판매 비중 확대에 의한 소형제품 수출 확대와 미국에서 대형제품 중심의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9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컴퓨터** : 소비자용 SSD 부문에서 PC·태블릿 시장의 역성장과 고객사 재고 적체 등이 이어지고, 기업용 SSD 부문에서도 빅테크 업체들의 재고조정 및 서버투자 증가세 둔화 등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자동차	24.2	16.4	6.8	31.2	29.0	28.3	30.5	28.1	21.9	47.1
자동차부품	22.2	2.4	-0.7	7.7	-1.1	3.1	0.8	-6.3	-16.2	13.3
선박류	16.4	-20.9	-6.7	5.9	-22.6	-8.8	-68.2	76.0	86.3	-10.7
일반기계	4.6	2.0	0.3	0.2	-3.1	-3.5	-1.9	-3.9	-15.9	13.0
철 강	36.9	5.7	17.2	-5.2	-17.6	-20.8	-10.6	-20.9	-25.8	-9.8
석유화학	54.8	-1.4	7.0	-9.8	-25.1	-25.4	-26.2	-23.6	-24.9	-18.3
석유제품	57.7	64.9	90.9	78.2	18.0	9.3	24.4	20.8	12.3	12.0
섬 유	14.0	-4.0	-1.9	-5.8	-18.7	-19.1	-20.2	-17.0	-27.5	-4.2
가 전	24.0	-7.4	0.0	-15.0	-24.0	-22.3	-25.1	-24.8	-19.9	4.3
무선통신기기	45.9	-10.4	-3.7	-14.9	-19.0	-5.5	-18.9	-33.3	17.7	-1.8
컴퓨터	24.7	-4.7	30.0	-26.8	-41.0	-37.1	-50.1	-34.7	-63.8	-66.4
반도체	29.0	1.0	13.6	-3.9	-25.8	-17.4	-29.9	-29.1	-44.5	-42.5
디스플레이	18.9	-1.1	4.7	-10.0	-20.2	-7.9	-15.6	-35.9	-36.0	-40.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2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리스크 점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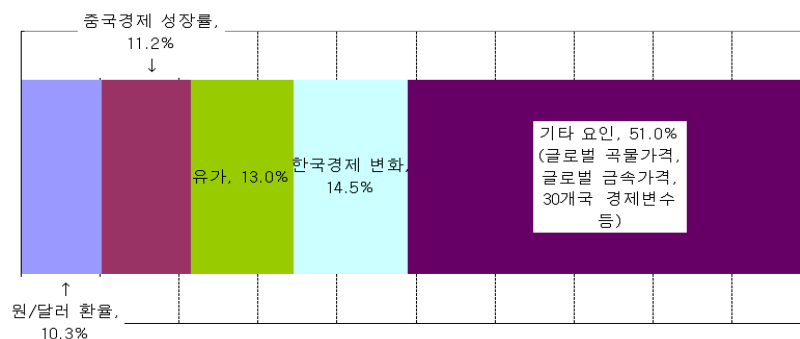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2023년 2월)

- 국내외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경제와 유가 및 환율 등을 포괄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주시가 필요

□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한국의 기대와 위험

- IMF는 연초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영향을 고려하여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4.4%('22년 10월)에서 5.2%('23년 1월)로 크게 상향
- 한국의 긍정 효과로는 대중 수출 회복, 중국 여행객들의 국내 유입 등을 기대
 - 2023년 한국경제 성장률에는 0.16%p(한국무역협회) ~ 0.3%p(하반기 기준, KDI)의 제고 영향을 예상
 - 중국 소비의 반등세도 예상되면서 세계 및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기대
 -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화장품, 항공, 해운, 호텔 등에서 강한 반등을 예상
 - 석유화학, 정유, 철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등은 제한적인 회복세를 기대
- 한국의 부정 효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통한 물가 상승 압력의 가중 우려
 - OPEC과 IEA, 글로벌 IB 등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영향으로 2023년 유가를 배럴당 85~100달러로 전망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비용 증대가 우려
 - 중국의 내수 중심 회복으로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미약할 것이며, 주택시장 침체와 투자 위축 등 국내 요인들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
- 한국경제 성장률의 변화 요인으로 한국경제 자체 변화(14.5%), 유가(13.0%), 중국경제 성장률(11.2%), 원/달러 환율(10.3%) 등이 있고, 기타 요인으로서 글로벌 곡물가격과 금속가격, 30개국 경제변수 등이 나머지(51.0%)를 설명

〈 한국경제 성장률의 분산분해 결과(IBK-GVAR 모형) 〉



- 중국경제와 유가 등 해외 요인의 변화에 한국경제 성장률은 상이하게 반응
 - 중국경제 성장률의 0.8%p 상승 시, 한국경제 성장률이 0.2%p 상승(IMF)하고, 유가 1% 상승 시, 한국경제 성장률은 0.08%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2023년 유가 전망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경제 성장률의 변화

- IMF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도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2년 10월)에서 1.7%('23년 1월 기준)로 0.3%p 하향 조정
 - 경기 둔화세와 고물가 지속, 수출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그 배경
 - 2022년 말에 발표한 여타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은행 1.7%, KDI 1.8%, OECD 1.8%, 아시아개발은행(ADB) 1.5% 등으로 1%대 중후반 수준
 - IMF는 러-우 전쟁,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물가 상승 지속으로 이어지면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산유국들의 감산 계획이 세계 석유 수요 급증과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어 한국경제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유가가 연평균 90달러 이상이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한국경제 성장률의 상승 효과가 소멸되면서 IMF의 올해 전망치(1.7%)도 하회할 가능성
 - 한국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정책을 통해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국내 요인보다는 내부통제로 직접 효과를 상쇄하기 어려운 해외 요인 충격에 취약
 - 기준가(연평균 85.5달러) 및 고유가(92.9달러) 시나리오에서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각각 0.23%p, 0.87%p 하락하면서 IMF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
 - 저유가(77.7달러)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약 0.43%p 상승하면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이점 향유 가능성 확대가 예상
- 최근에 유가 상승세로 성장 축소 위험의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도 높아 중국경제와 유가, 환율 등 대내외 여건에 대한 폭넓은 주시가 필요

< 2023년 중국경제 성장률과 유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

	유가 (달러/배럴, 두바이유 기준)						
	2022년 12월 30일	2023년					
		시나리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평균
중국경제 성장률 (IMF 기준) 0.8%p ↑ (분기별 0.2%p ↑)	78.77	❶ 기준가	83.02	82.59	86.52	89.73	85.47
		❷ 고유가	88.76	89.72	93.94	98.98	92.85
		❸ 저유가	77.30	75.57	78.19	79.86	77.73

주 : 에너지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3년 국제석유시장 분석 및 유가 전망, 2023년 1월 5일) 참고.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3.13)	(3.14)	(3.15)	(3.16)	(3.17)
	 2월 소비자물가	 1~2월 산업생산  1~2월 소매판매  1~2월 고정투자  1월 산업생산  2월 소매판매  2월 생산자물가  2월 고용동향	 2월 무역수지(잠)  1월 산업생산(수)  1월 소매판매(수)  1월 기계수주  ECB 통화정책회의	 2월 소비자물가(수)  1월 수출입통계  2월 산업생산  2월 경기선행지수
(3.20)	(3.21)	(3.22)	(3.23)	(3.24)
	 연준 FOMC(~3.22일)  2월 생산자물가			 2월 소비자물가  2월 내구재수주(잠)
(3.27)	(3.28)	(3.29)	(3.30)	(3.31)
 1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3월 소비자물가	 3월 소비자물가동향조사	 2월 무역수지(수)  3월 경제체감지수  22.4분기 실질GDP (확 정 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2월 산업생산(잠)  2월 소매판매(잠)  2월 실업률  3월 소비자물가(예)  2월 실업률  2월 개인소비  2월 산업활동동향
(4.3)	(4.4)	(4.5)	(4.6)	(4.7)
 3월 ISM 제조업지수	 3월 소비자물가	 3월 ISM 서비스업지수  2월 무역수지		 2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3월 고용보고서